

發 刊 辭

이번 호에서는 법학연구소가 1998년 2월 “사회병리와 법적대응”이라는 주제하에 개최하였던 학술대회의 발표문과 토론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1997년 후반부터 현재까지 우리 나라는 실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의 도산과 실업자의 양산으로 사회가 불안하여지고 국민생활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관한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으나, 법학연구소는 법적인 차원에서 그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연구하여 보는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번 호에서는 아울러 여기서 이루어진 발표와 토론의 결과를 신게 되어 큰 보람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연구논문이 실려 우리 학문의 발전과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올해는 법학지 4호 각권을 모두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3호와 4호를 묶어 1년에 3권만을 출간하여季刊의 의미를 반감하였습니다. 올해는 각 분야의 다양한 연구성과물이 게재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늘리기 위한 목적에서 4권 모두를 정기적으로 출간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玉稿를 보내주신 본 법학연구소 상임연구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법학」이 보다 새롭고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호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과 교정에 많은 수고를 하여 준 법학연구소 직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1998년 5월 12일

서울대학교 法學研究所長

梁 承 圭